

2020 영등포아트홀 로비갤러리

기획 space xx

ART

+

PLUS

vol.1

2020.2.17. - 8.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영등포구민회관
로비 및 공용공간



참여작가

권민우 김한기
이희준 전은숙
최두수 허보리

작가 및 작품설명

권민우

-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과 학사
- 인천 국제조각 페스타, 경기창작센터, 현대정크아트조각전 등 다수의 기획 및 초대 전시 참여
- 서대문여관 아트페어 1회, 서대문여관 아트페어 2회, 공사중 미완성의 완성전 <구루지> 전시 기획

제자리걸음

함부로 '열심히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주어진 삶에 모두 싸우고 있다. 밥만 잘 먹으면 삶인가?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어야 하고 노력하면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열정을 빙자해 사람을 소비재로 이용하는 현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자신을 채찍질 하며 수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타들어가 사라지는 모습을 돌아보자. 남들과 같은 기능을 갖추기 위해 매일 불안에 시달리는 이 시대.

작품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당신과 나의 이야기다.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페달을 밟지만 마치 시시포스의 바위처럼 동일한 패턴을 그리며 제자리다.

-권민우-

- rice bowl: 권민우 작가는 작품 가운데 젊은 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현실과 그 세대들의 가치관을 투영시킨다. 'rice bowl'은 작가가 삶 안에서 고분 분투하는 각 사람의 삶을 밥그릇으로 비유한 작품이다. 밥그릇을 지속적으로 치는 형상은 삶 가운데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를 대변한다.
- 바이시클맨: 허공에 매달려 있는 바이시클맨은 열심히 바퀴를 돌리지만, 한곳으로 돌아오는 페달로 인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작가는 인생 가운데 열심히 나아가지만 당면하게 되면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나아가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위로를 던진다.
- 날개 시리즈: '날개'는 운동주 시인의 시 중, 한 구절인 '한 번 더 날아보자꾸나'를 묵상하며, 좌절한 인생의 순간 가운데 한 번 더 날아보고 싶다는 희망을 담은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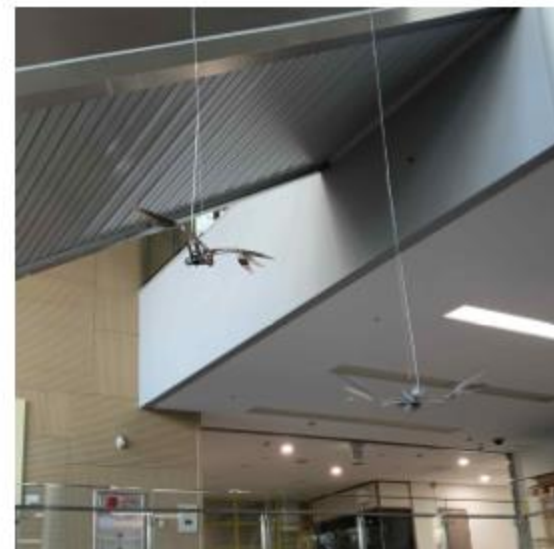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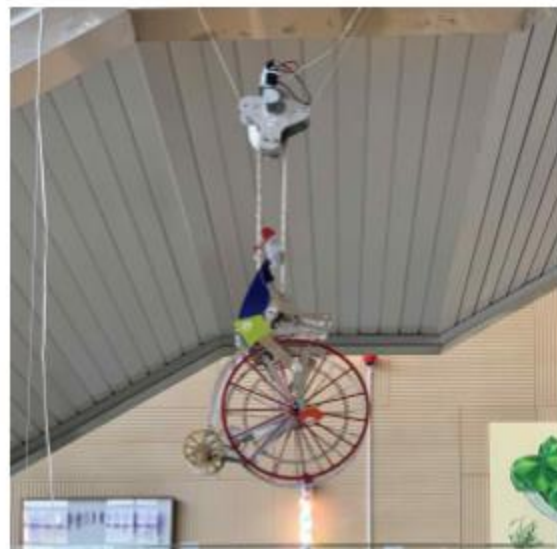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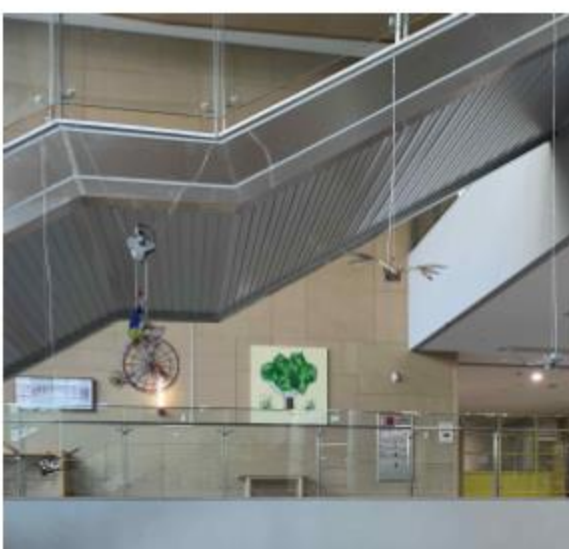
바이시클맨, 77x 50 x 11cm, abs, 스테인리스스틸, 혼합재료, 2017



Rice bowl, 80 x 80 x 45cm, Stainless steel, Brass bowl, motor, led, 2019



날개 series, 70 x 11.5 x 12cm, Stainless, 2019



영등포아트홀 로비갤러리 설치 전경

김 한 기

-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과 학사 및 동 대학원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강의, 동국대학교 강의, 시립조각회원, 삼양디자인 디자인 연구센터 소장
- 갤러리 도스, 모란 갤러리 등 개인전 포함하여 유중아트센터, 모란미술관, 성남아트센터 등 다수 기획 전시 및 단체전 참여

김한기 작가는 초현실주의 기법을 조각과 접목시켜 작품을 구상한다.

작가는 예술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현 방식에 의문을 던지며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물들을 병치시켜 소외되어왔던 여러 가치들을 다시 등장시킨다. 데칼코마니(Decalcomanie), 데페이즈망(Dépaysement), 포토몽타주(Photomontage) 등의 초현실주의 기법을 활용하여 무의식이 가지는 우연적 효과를 의도한다.

<무슨 생각이신가요> 시리즈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사물들의 독특한 연출을 끊임없이 시도함으로써 관습화된 인간의 시각에 자극을 주고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자 한다.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평범한 이미지들을 결합하고 낯설게 하는 것으로부터 의식의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인간의 감성을 해방시키고자 한다.



무슨 생각이신가요-도시인1,
100X 30cm, 혼합재료, 2017



무슨 생각이신가요-말, 100X 30cm,
혼합재료, 2017



무슨 생각이신가요-도시인(PURPLE),
121X52cm, 혼합재료, 2019



영등포아트홀 로비갤러리 설치 전경

이 희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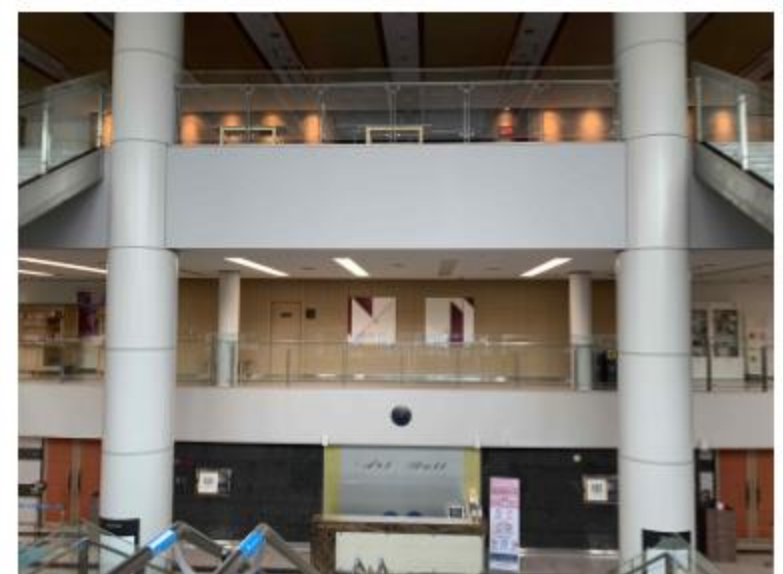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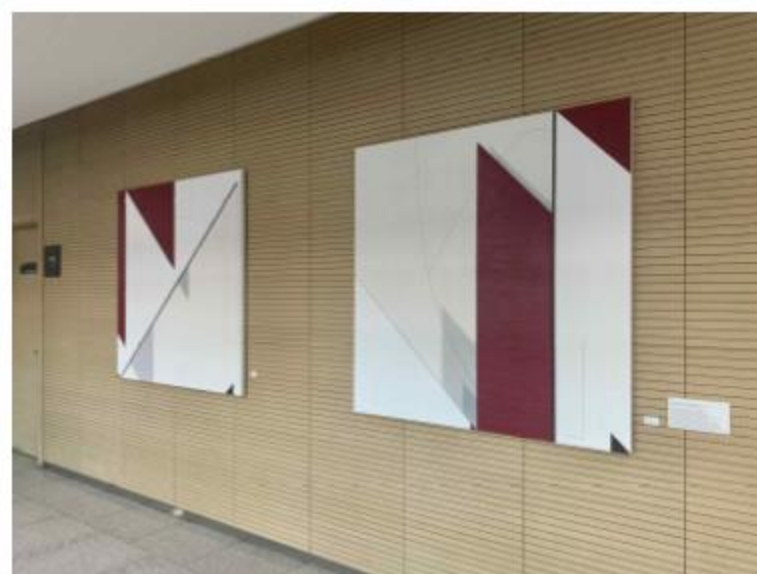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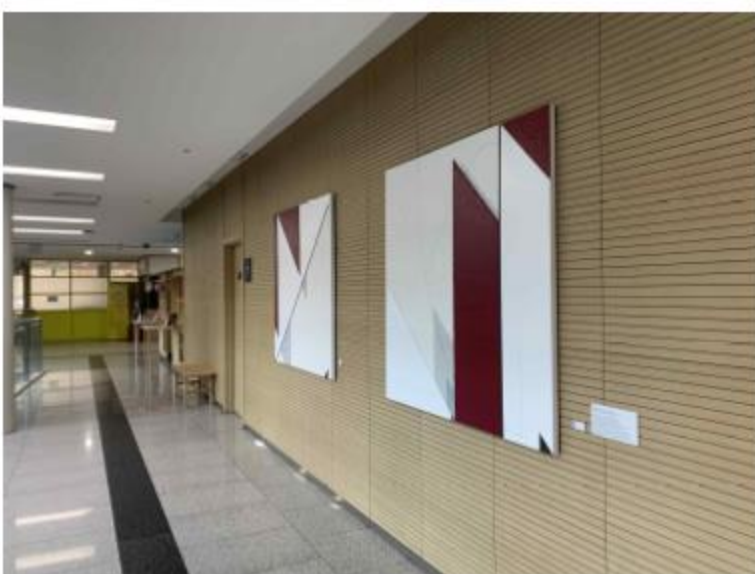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조소과 학사 및 글라스고 예술대학 석사
- 아트인컬처 뉴룩 선정, 미술세계 Essay&Image 선정, 서울문화재단 최초 예술지원 전시지원 선정
- 이목화랑, 위켄드, 기고자 등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시 참여

Peter Hally는 Abstract and Culture(1991)에서 우리의 일상을 추상이라 설명한다. 기술의 발달로 지역과 지역 간의 거리는 좁아졌고 여행의 시간은 줄어들었다. 과거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일도 이제는 기계의 도움으로 손쉽게 끝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또한 점점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추상화적 회화는 추상화라기 보단 추상적인 세상을 보다 근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과 우리의 일상이 점점 추상이 되어간다면 오늘날의 추상은 점점 실제에 가까워지고 있을지 모른다.

최근 북해도 지방에 투어여행을 다녀온 경험에서 작가는 <비에이>연작을 구상하였다.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핸드폰 화면으로만 남겨진 기억,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경험 속에서 지나간 시간과 장소를 회화 언어로 화면에 옮기려 하는 시도에서 작가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였다. 스치듯 지나가는 시간, 장소, 경험은 어떤 구체적 정보를 담기보단 얇은 감각으로만 존재하고 그러한 감각을 기하학과 추상의 언어를 빌려 표현하고자 한다. 처음부터 한계를 가지고 시작된 여행에서 현상을 수동적으로 습득하고 우리의 감각마저 압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라면 Hally의 주장처럼 추상미술은 단순히 추상화된 현재의 세상을 비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에이 연작은 작가의 희미한 기억과 압축된 감각으로 남은 여행의 잔상을 캔버스 위에 보여준다.



Biei no.112, 113, 130.2x130.2cm, Oil and acrylic on canvas, 2019



영등포아트홀 로비갤러리 설치 전경

전 은 속

- 성균관대학교 예술학부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학사 및 동대학원 석사
- 유중 신진작가 공모 대상, 포브스 선정, 유망작가25인 선정,
- lab_203에서 개인전을 포함하여 술술협력센터, 금천예술공장에서 다수의 전시 참여
- Expanded Irregular Temporary Residency Delhi, 호주 태즈메이니아 예술위원회 국제교류프로그램 레지던시 진행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을 향한 가상 세계를 구축하려는 욕망이 음식사진, 여행사진 등의 나르시스적인 셀카 사진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두가 엇비슷해 보이는 편재(遍在)하는 범속함에 스스로도 속해 있음을 재확인할 뿐이다.

〈Royal Botanic Garden〉은 우리의 현대 환경과 유사한 지점이 있는 식물원 속 식물들을 관찰하여, 그 표피를 감각화 한 작품이다. 이 시리즈는 무게중심도 따로 없고 때로는 사이키델릭 핑크한 형광색도 구사하며 수채화처럼 경쾌하고 투명하게 붓질되어 있다. 작가는 최소한의 원근감만을 유지함으로써 보는 주체가 두드러지지 않게 하고 인물과 사물의 경계를 넘나들며 스타일리시한 매끈한 회화표면을 만들어낸다. 세상을 해석하는 것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신의 섬세한 점막을 자극하는 감각소여에 대해 나타낸다. 〈Royal Botanic Garden〉는 현대 사회 가운데 개인이 적당한 거리에서 간혀 있는 아픔을 숨긴 채 존재하는 관상용 식물에 비유하여 표현한 작업들을 선보인다.



아래 켜진 불,
91x91, oil on canvas, 2020



royal botanic garden,
161.5 x 97cm, oil on canva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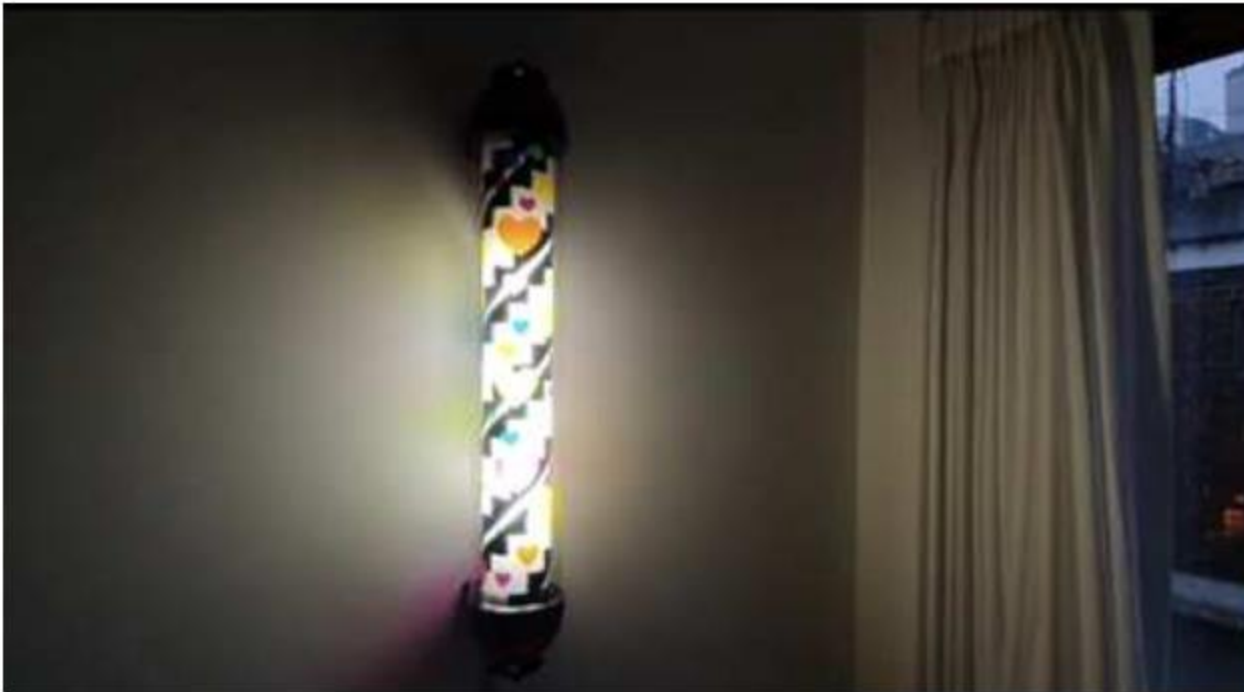
royal botanic garden,
100 x 100, oil on canvas, 2017



영등포아트홀 로비갤러리 설치 전경

최 두 수

-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과 학사 및 첼시 칼리지 예술대학 석사
- Red Gate Galery Residency Program, Atelierhaus Artist Residency, Biz-Art Center, 쌈지스페이스 레지던시 프로그램 진행
- 스페이스오뉴월, 팔레드 서울에서 개인전 비롯, 경기창작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일민미술관 등 다수 전시 참여
- 전 프로젝트 스페이스 집 디렉터 및 현 스페이스 엑스엑스 디렉터



A sign for short sweet and magical times, 가변크키,
Mixed Media, 2017



이발소등, 가변크키, Mixed Media, 2017



영등포아트홀 로비갤러리 설치 전경

허 보 리

- 서울대학교 서양학과 학사 및 동 대학원 석사
- 유중 창작 스튜디오 2기 입주작가, 한국은행 신진작가 공모선정
- SEUM ART SPACE, AK 갤러리 등 개인전 비롯, space xx, 스페이스오뉴월, 성남아트센터 등 단체전 및 기획전 참여
-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한국은행, 유중아트센터, AK 갤러리 등에서 작품소장

마음의 포수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왔다.

이것은 연극 같은 것인데 나는 마음의 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시(可視)적인 사물을 주물럭거리려 최대한 비유적으로 그것에 가까워지도록 연기하도록 도와주는 연출자이다.

그러니까 나의 배우들은 주변의 사물들이고 내가 그리는 배경이나 소품들은 연극의 무대가 된다. 나는 이런 떠다니는 공허한 이미지를 잡아내는 포수(捕手) 이다.

-허보리-

허보리 작가는 사물과 유희의 스토리텔링을 구상한다. 변형되고 쌓여가는 형태들은 인간에 의해 거세당한 사물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불완전한 사고의 균집을 대변한다. 이러한 작가의 사유과정은 사물을 관찰하는 단계(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작품에 감정을 이입하는 단계(새로운 생명체의 창조)로까지 이어진다. 현실상황 속에서 확장된 비현실의 모티브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짝 닫혀 있던 우리의 머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킨다.



나무집 I, 130x130cm, oil on canvas, 2013



돌맹이, 27x35cm, oil on canvas, 2019



Green Tray III -Carrot, 45x27cm, oil on canvas, 2018



화분, 41x32cm, oil on canvas, 2020



영등포아트홀 로비갤러리 설치 전경

영등아트홀 2층 로비공간

